

## News

### 130조 '코로나대출' 9월까지 또 만기 연장...은행들 "부실뇌관 될라"

한국경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5대 금융지주 회장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 프로그램을 9월까지 재연장하기로 금융위에 따르면 1월 22일 기준으로 130조2000억원(43.5만건)의 대출에 대해 만기가 늦춰졌다.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가 상환을 유예해준 돈은 전체의 68%인 88조9000억원

### 금융당국, 개인사업자 대출 리스크 점검 강화

디지털타임스

금융감독원이 개인사업자 대출 스트레스테스트로 부실 예방. 가계부채의 관리를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스트레스테스트 모형을 구축, 리스크 세부적으로 파악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개인사업자대출의 은행대출 잔액은 386조원으로 1년간 47조5000억원 증가

### 하나금융 회장 추가연임 가능성에 은성수 "회추위 판단 존중"

연합뉴스

하나금융지주 차기 회장 최종 후보군에 김정태 회장이 포함된 것과 관련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 밝혀 하나금융 회추위는 전날 김 회장을 포함해 차기 회장 슌리스트 4명을 발표했다. 회추위는 후보군을 상대로 심층면접 등을 거쳐 이달 안에 최종 후보를 확정할 계획

### 사모펀드 사태 재발 않도록 ··· 금감원, 모니터링 · 임원 책임 강화

연합뉴스

금감원은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논란이 된 사모펀드 사태를 막고자 금융 상품의 제조 · 판매 · 사후관리를 모니터링하는 금융 상품 정보 입수 분석 시스템을 구축 금감원은 은행지주를 중심으로 연결 기준 유동성 · 레버리지 비율을 도입하고 비은행 금융회사의 외화 조달 · 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 토스증권 "MTS 사전 신청자 3주 만에 신청자 40만명 돌파"

아시아경제

토스증권은 지난달 27일부터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사전 이용자를 모집한 결과 3주 만에 40만명을 돌파 사전 신청 약 3주 만의 결과로, 약 620만명 수준으로 추산되는 우리나라 주식투자자구의 약 6.5%가 신생 증권사의 MTS를 신청

### 토스, 삼성생명 손잡고 보험설계사 플랫폼 확장

한국경제

토스보험파트너는 토스가 운영하는 보험 설계사 전용 영업 지원 앱(응용 프로그램)으로 토스를 통해 보험 상담을 신청한 고객과 상담 및 계약 관리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현재 토스보험파트너를 이용 중인 설계사들은 월 평균 5명의 신규 고객과 연결되고 있다.

### 삼성생명, 설 연휴 끝나면 제재 확정? 장기화 가능성에 '불안'

더팩트

삼성생명에 대한 금융위원회(금융위) 징계 수위 결정이 미뤄지면서 장기화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제재안 확정이 미뤄지면 삼성생명 및 삼성카드의 신사업 진출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삼성생명은 헬스케어 · 자산운용 서비스 확대에 제동이 걸린다.

### "보험사기 꼼짝마"... 금감원, 기획조사 나선다

동아일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최근 3년간 보험사기 취약 부문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에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우선 상품별로는 운전자보험을 활용한 보험사기(사고보험금의 6.0%)가 가장 많았고 이어 화재(3.9%) 정기(3.8%) 여행자(3.3%) 종신보험(3.0%) 순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